

연중 제10주일(삼위일체대축일)

제1독서 : 잠언 8, 22 - 31

제2독서 : 로마 5, 1 - 5

복 음 : 요한 16, 12 - 15

순정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
기 되었습니다.”

(로마 5, 1)

강론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천봉 신부/임실성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분명히 한분이신 하느님이시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치지않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더불어 함께계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때로는 삼각형을 그려봄으로써 이해에 접근해보기도 한다. 신앙은 마치 동양화 한폭처럼 저멀리 구름 속에 보일듯 말듯한 산봉우리같은 신비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전부 알수는 없기에 신비스러운 하느님의 모습을 남겨놓으면서..... 어떤 이론적인 접근보다도 이 교리가 우리네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본다.

신앙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너무도 동떨어진 내모습을 다듬어가면서 하느님을 닮고자 애를 쓰는 것이다.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일에 기꺼이 뛰어들었다.

우리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한다. 사랑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기적(?)을 가능케한다. 불완전한 남녀의 사랑도 결혼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다”(창세기 2, 24). 하물며 완전한 사랑이신 하느님이시고 보면 얼마든지 삼위일체의 기적도 가능할 것이다.

분명히 한분이신 하느님이시지만, 혼자계시는 한분 하느님이 아니라 삼위가 더불어 함께 계시는 한분 하느님이 되시는 기적말이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그러하시듯 우리도 하느님과 나, 나와 이웃의 관계가, 사랑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안에서 표현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느님의 크신 신비를 비로소 온전히 알게되리라 믿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때보다도 기적이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기적말이다. 신앙은 모든 것을 가능케하고 기적을 만든다. 그러기에 사랑이 더욱더 절실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네 삶의 이정표로 가까이 다가온다.

소리

입조심, 말조심

대화를 하려면 우선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대화에는 예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해라를 쓰고 어른에게는 하십시오를 쓰는 것이 한국의 언어 관습입니다.

아무리 허물이 없는 친구간이라도 말을 할 때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그제 모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재봉틀로 꿰매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국회의원은 한국의 언어 관습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한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말이 이처럼 거칠어졌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기초위원 선거에서 일부 상식 없는 출마자들이 상대방을 헐뜯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악선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약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시민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기초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잘 헐뜯어야만 선거에서 승리하는 사회라면 우리 사회는 병든 사회가 분명합니다. 상대방 후보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정책 제시로 당선되는 그런 선거 사회가 되려면 아직 멀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입조심, 말조심하여 서로 아껴주고 칭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태)

순정이 산책



성서의 오솔길

토비트서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토비트서는 기원전 200년 경에 쓰여진 교훈서(敎訓書)로서, 유배지에서 시련을 당하면서도 하느님과 율법에 충실했던 두 집안의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느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토비트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고 힘 닿는 대로 동포들을 돕는 데 온갖 정성을 다했다. 그런데 토비트는 오해를 받고 실업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장님이 된다.

같은 시기에 페르샤의 다른 도읍 예바타나에 사는 이스라엘인 라구엘의 집안이 환난을 겪고 있었다. 혼기가 찬 외동딸 사라가 악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모스테오라는 이름이 붙은 이 악마는 일곱 번이나 결혼 초야에 사라의 신랑들을 죽여 버린다. 모두가 사라와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밤을 맞기도 전에 죽어버린 것이다.

하느님은 천사 라파엘을 통해 선량한 이스라엘 두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토비트서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하느님은 당신께 충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평범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통해 토비트서는 율법 준수, 기도, 자선,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의 중요성, 자녀에 대한 사랑과 효도 등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토비트서에는 구약성서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토비트서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토비트서는 수호천사에 대한 가톨릭 교리의 근거가 되어 주는 점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8년 성령의 해

TV에 나온 자매님

저녁 9시 뉴스, IMF시대를 따뜻이 살아가는 사람을 소개하는 시간에 우리 자매님 한분이 소개되었다. 지나가다가 끝 부분만 얼핏 보았기 때문에 그 앞의 내용을 놓쳤지만, 넉넉한 살림도 아닌 듯이 보이는 연세 지긋하신 자매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었다. 틈나는 대로 이웃을 방문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고, 병석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 위로와 기도를 해주던, 일손이 필요한 곳에서는 내 일처럼 도와주었다. 아마도 우리 레지오 단원이 아니신가 싶다. 자신의 묘지로 쓰려고 사 놓았던 터까지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기로 하였다는 훈훈한 이야기였다.

이 자매님은 회년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살고 계신 분이였다. "아버지, 똑똑하며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찌면 소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년을 더 잘 이해하고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우리가 구약성서가,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

신대로 회년을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과 은총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해 보자. 내가 빛을 쬐는데 어느 날 다 탕감받는 것을, 누군가에게 묶여있던 노예인데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쁨과 은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탕감해 주면서 탕감받고, 풀어주면서 풀리며, 쉽스로 진정한 의미의 창조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동안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며 살아온 우리의 비그리스도교적인 가치관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다운 가치관으로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하여 지금부터 이 회년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다가오는 대희년은 분명히 벽찬 자유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는 놀라운 해가 될 것이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아멘.

기쁨과 은총의 대축제 2000년 대희년까지 1년 6개월 23일 남았습니다.

미리내 실버타운(유무상통마을)
신청 접수중
성지순례겸 풍사현장 답사 겸해서 꼭 찾아주세요.
주관 : 도척성당 설립의 사회복지법인 방상복 신부
문의 : (0347) 64-9753
(0347) 73-6145

동보한의의원 동부약국
최첨단 의료시설 및 주차장 완비
원장 김 경 환(파비마노)
약사 범 순 복(안 나)
익산시 영동동 천주교회 옆
☎ 한의원 (0653) 52-4666
약 국 (0653) 841-7217

서도프라자 확장이전
코아삼의피아노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덴(면세)
디지털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 노 섭(하삼바로)
Tel. 225-5252, Fax 223-5332

고 려 보 석
금·은·시계 결혼 예물 전문
(묵주반지 제작전문)
김 형 태(울리아노)
박 태 연(마르타)
전동성당 사거리 전북은행 앞
☎ 82-9005

잠간

군산교도소 견진성사

지난 6월 1일 오후 1시 30분, 군산교도소에서는 교구장 이병호 주교의 주례로 견진성사가 집전되었다.

군산교도소 강당에서 있는 이번 견진성사예식에서는 400여명의 재소자와 60여명의 방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48명의 재소자가 성령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누렸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에서 요한복음 4장의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인용하여 예수님만이 인간의 깊은 갈증을 풀어주는 분이시며 그분을 만날 때 참된 용서와 사랑을 맛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견진성사에는 둔율동성당 성가대와 나운동 기타 합주단이 참석하여 견진성사를 받는 재소자들을 축복해 주었고 사회교정사목후원 회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재소자들을 위로했다.



사제들의 성화를 위한 9일기도

다가오는 6월 19일 예수 성심 대축일은 '사제 성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례와 성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구원의 사명을 이세상에서 계속하는 사제들을 위하여 교구에서는 '사제 성화의 날'을 준비하는 구일기도를 전 교구민이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구일기도방법은 6월 9일부터 18일까지 매일미사에 참석하여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제들을 아끼는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제 성화의 날인 6월 19일에는 치명자산에서 사제단 합동미사가 있습니다.

교구·제 단체 소식

- 1. 성직자 모지미사 : 6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치명자산
2. 사제성화를 위한 9일기도 : 6월 9일(화)~18일(목) * 주일은 제외
3. 새사제 연수 : 6월 11일(목), 오전 10시, 교구청
4. 레지오 영성피정 : 6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치명자산
5. 빈첸시오이사회 월례회의 : 6월 13일(토), 오후 3시, 군산 월명동성당
6. 예비신학생 월모임 : 6월 14일(주일), 오후 1시 30분, 가톨릭센터
7. 전주교구 합창단 단장모임 : 6월 14일(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4층 연습실
8. 예수성심성월피정 : 6월 10일(수), 오전 10시, 효자동성당, 강사-박종인 신부, 주제-관상기도
9. 기억할 사제 : 6월 14일(주일), 서병익(바오로)신부 50주기
10.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6월 20일(토)~21일(일), 주제-그리스도와 성체신심, 지도-김만수 신부

요십이 (1296) 김병호



솔미피정의집 주말피정
주제 :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일시 : 6월 20일(토) 오후 5시~21일(일) 오후 1시까지
강사 : 배승록 신부 (솔미피정의집)관장
대상 : 일반신자 회비 : 25,000원
신청 : (0457) 36-5021~2

가르멜수도원 성소모임
• 6월 13일(토) 오후 2시~14일(일) 오후 2시
• 고등학교 2년이상 대학생 및 일반남성으로 성소에 관심있는 분
• 남자 가르멜 인천수도원 (032) 542-2625, 549-9176
박가브리엘 수사

하안집 결혼옷가게
웨딩드레스, 턱시도대여
웨딩앨범 제작, 출장부패, 신혼여행
강 덕 용(베르나르도)
서신동 세진컴퓨터 맞은편
☎ 254-3651, 244-9292

동전주 주유소
<품질좋은 쌍용>
성실, 신용으로 시내 전지역 신속배달
소양, 진안 방면 초입 (우아동 파출소옆)
활연옥(요셉) · 윤성자(수산나)
☎ (0652) 245-5123, 5134(오일상사)
(후) 016-606-5134

스포렉스 요육센터
· 척추관절 생체교정 요육
디스크, 좌골신경통, 요통, 두통
원 장 임 대 원(요셉)
물리치료사
영등동 동초등학교앞(우남상가 2층)
☎ (0653) 831-2952(사무실)
831-9326(자)

LG 에어컨
12~22% 할인+6회 무이자
냉난방기기 상담 환영
식당용 냉장고 17개월 무이자
백제로 빙상경기장 맞은편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일신부 225-0397 사무실 225-0396 주일신부 오성기
F A X 222-4954 수녀원 226-3487 사목회장 심성택

- ◎ 예수성심을 본받아 공동체를 성화합시다!
1. 모임: ① 레지오 꾸리아 - 교증미사 후
② M.E모임 - 8일(월) 후 8시
③ 자모회 - 10일(수) 전 10시
④ 성령기도회 - 11일(목) 후 8시
⑤ 애령회 - 12일(금) 후 8시
⑥ 바오로회, 베드로회, 요셉회, 성모회 - 14일(주일) 교증미사 후
 2. 여성강좌: 10일(수) 전 10시~후 3시 30분, 참가비 - 3,000원
 3. 축! 세례성사: 13일(토) 후 4시 * 축하드립니다.
 4. 고백성사: 미사 전후 20분씩 볼 수 있음.
 5. 제단체 가입: 본당 제단체에 가입하여 신앙성숙과 친목도모 요망.
 6. 주일미사: 어려울수록 꼭 가지 말고 꼭 봉헌하십시오.
 7. 수집안내: 도서실용 책자와 기금마련 폐지 내주시길 바랍니다.
 8. 특별 헌금: 금주 봉헌자 - 1명 300,000원
 9. 교무금 월납제: 교무금 봉헌 감사드리며, 월납을 부탁드립니다.
 10. 회합실 사용: 책임감을 가지고 깨끗이 사용하시기 바람
 11. 금주 전례: 해설 - 박영춘, 독서 - 정형석(시메온) 부부
봉헌 - 박삼차(아우구스티노) 가정
 12. 차주 전례: 해설 - 문승욱, 독서 - 김학덕(보나베티라) 부부
봉헌 - 방도섭(스테파노) 가정

□ 지난주 봉헌금: 1,661,180원 □ 교무금: 1,558,000원

서신동 주일신부 74-9261 사무실 74-9260 주일신부 오현택
F A X 74-9260 수녀원 74-9262 사목회장 유춘웅

- ◎ 예비신자 배가운동에 우리모두 적극 참여합시다!
* 환영식 - 7월 5일(일) 공식미사중, 입교신청서 사무실에 접수
- ◎ 오늘: 화산동 성당을 위한 2차헌금, 빈첸시오회비 납부일
1. 금주 모임: 요아킴회, 안나회 - 공식미사 후
 2. 주간 모임: 성령기도회 - 9일(화) 후 8시, 유아실
 3. 차주 모임: ① 울뜨레아 - 공식미사 후
② 동산회 - 후 2시 * 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일
 4. 어린이 첫영성체: 14일(차주) 공식미사중,
첫고백 - 13일(토) 후 3시 * 부모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바람
 5. 환자 봉성체: 12일(금) 후 1시, 수녀님
 6. 전입가정 환영! : ① 김승택(바오로) T. 74-4829, 현대A 110-802
② 김환옥(루시아) T. 72-3511, 10구역 3반
③ 최갑선(엘리사벳) T. 74-9410, 10구역 3반
④ 김혜영(헤레나) T. 253-2206, 성원A 106-502
 7. 부지헌금 2차신청 감사! : 황병년 5만, 오해걸 5만, 김영자 1만,
김영섭 1만, 김효숙 1만 누계 - 573만
 8. 축! 결혼: 오늘 12시 성당, 신랑 - 강종식씨 장남 강유정
신부 - 소진우씨 장녀 소 라(페르모니아)
 9. 독서: 금주(새벽) - 박 훈, 김춘자, 차주 - 박경수, 조옥순
(공식) - 김형배, 김 수, 차주 - 김의주, 이우자
 10. 미사 안내: 금주 - 찬송하을 모후Pr., 차주 - 하자없으신 모후Pr.
 11. 주차 안내: 금주 - 모든 성인의 모후Pr., 차주 - 바다의 별Pr.

□ 지난주 봉헌금: 2,301,000원 □ 교무금: 3,791,000원

용매리 주일신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일신부 박기준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규세

- ◎ 주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 이리 모하시고.
1. 모임: ①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테니스 - 오늘 후 2시, 해성학교
③ 구역반장 - 10일(수) 미사 후
 2. 봉성체: 11일(목)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3. 레지오 단원교육: 11일(목) 저녁미사 후, 성당에서
 4. 사목회장 이취임식: 오늘 공식미사 후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세(다마스) 회장님,
수고해주시겠습니까! 최광엽(디오니시오) 회장님
* 모든 사목회 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5. 오늘은 성소후원회비 납부일입니다.
 6. 금주 전례: 해설 - 오은표, 독서 - 황금석, 이수자
 7. 차주 전례: 해설 - 박태승, 독서 - 이규세, 국혜원
 8. 청소년사: 3, 4구역

□ 지난주 봉헌금: 1,268,170원 □ 교무금: 1,552,000원

화산동 주일신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일신부 이철우
F A X 221-9842 수녀원 225-3675 사목회장 서동호

- ◎ 주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 이리 모하시고.
- ◎ 성전신축헌금 신청금을 6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주 모임: ① 꾸리아 - 전 9시
② 편집분과회의, 애령회, 울뜨레아 - 낮미사 후
* 성전신축 2차헌금 있음
 2. 성령묵상회: ① 8일(월)~13일(토) 후 7시 30분~10시 30분
② 참가비 - 5,000원 * 사무실에 신청바람.
 3. 9일 기도: 사제성화를 위해 → 18일
 4. 예비신자 교리: 9일(화), 10일(수) 후 8시
 5. 차주 모임: ① 첫영성체 - 미사중
② 요셉회, 안나회, 자모회, 대건회 - 낮미사 후
③ 전 예비신자를 위한 9일기도(초봉헌)
* 음반보급 - 수원교구 인덕원 성당(안양)
광주교구 삼학도 성당(목포)
 6. 구역미사: 19일(금) - 성원골드
 7. 청소년사: 13일(토) - 능하신 정녀Pr.
 8. 폐품 정리: 13일(토) - 예언자의 모후Pr.
 9. 화단정리: 13일(토) - 바다의 별Pr.
 10. 금주 전례: 새벽 - 유희정, 낮 - 최영순, 저녁 - 정인자
 11. 차주 전례: 새벽 - 관순옥, 낮 - 김영중, 저녁 - 이영숙

□ 지난주 봉헌금: 1,059,500원 □ 교무금: 1,949,0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3,300,000원

효자동 주일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일신부 서정현
수녀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해건

- ◎ 구역내 쉬고있는 교우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합니다: 진출신고를 하지 않고 타본당 구역에 이사로 거주불명교우를 찾아내 교적을 보내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줍시다.
1. 금주 모임: ① 성체봉사자모임 - 9일(화) 전 12시
② 성모회 - 10일(수) 전 11시
③ 예루살렘회 - 13일(토) 전 10시
 2. 성서교리교실: 매주 화 오전반(11시~12시), 저녁반(8시~9시)
* 바로 알고 바른 행함을 위한 귀중한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첫영성체 어린이 고백성사: 12일(금) 후 4시
첫영성체 어린이 세례식 - 13일(토) 후 2시
* 첫영성체식 - 14일(일) 공식미사중에 있음
 4. 환자봉성체: 10일(수) 전 9시
 5. 전입가정 환영: 김창환(마지아) - 신일A 5-107
 6. 예수성심생활 피정: 10일(수) 전 10시~후 5시
 7.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거성국민A 구역
 8. 이웃사랑 기금: 27일부터 31일까지 553,000원 * 감사합니다.
 9. 주님을 깨끗이: 미사전후 자기주변을 깨끗이 합시다.
* 휴지는 줍고 숲정이는 꼭 가지고 갑시다.

□ 지난주 봉헌금: 1,413,930원 □ 교무금: 1,913,000원

효자우전 주일신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일신부 서석우
보좌신부 226-0443 수녀원 223-0715 보좌신부 김호준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영근

- ◎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누계 - 875,560단
1. 금주 모임: ① 천주의 모친Cu. - 전 9시
② 성령기도회 - 10일(수) 후 8시
③ 자모, 성모, 성심회 - 12일(금) 10시미사 후
④ 울뜨레아 - 12일(금) 후 8시
 2. 사제양성후원회 가입과 회비 접수합니다.
 3. 첫영성체 예식, 세례식: 13일(토) 후 2시
 4. 미납된 신축헌금과 식권대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2,520,000원(8세대)
 6. 성체조배: 매주 금요일 전 10시 30분~후 7시
 7. 차주: 애령회, 제대회
 8. 금주 전례: 해설 - 이건옥, 독서 - 김영길, 오순화
봉헌 - 유병환, 김성자 부부
 9. 차주 전례: 해설 - 김용만, 독서 - 김영호, 강남주
봉헌 - 정명환, 최영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853,770원 □ 교무금: 3,278,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께 숲정이를 전달합니다!”